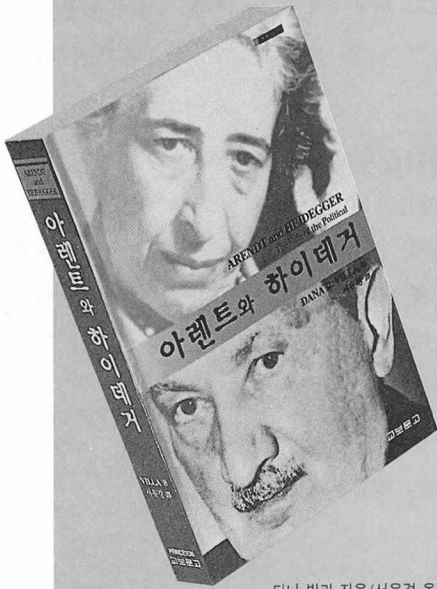


'정치적인 것'의 비극적 운명 성찰 아렌트 정치행위론의 함의 부각

《아렌트와 하이데거》



다나 빌라 지음/서유경 옮김
교보문고/A5신/564면/15,000원

공공영역의 확장과 참여정치의 활성화, '정치' 철학의 진지한 모색은 근대성에서 탈근대성으로의 패러다임 이동과 정치질서의 변동에 기여할 것이다. 탈근대론과 공공영역의 연계성에 공감하고 있는 다나 빌라는 학문적 '애증'(愛憎)의 관점에서 정치철학자 아렌트와 철학자 하이데거의 지적 궤적을 연계·분리시키는 데 탁월한 지적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의 부제가 암시하듯, 빌라는 '정치적인 것'의 아렌트적 재구성에 대한 성찰을 핵심문제로 삼고 있다. 근대성의 반항자인 아렌트는 세계성의 상실로 야기된 공공영역의 축소와 권위의 위기에 대면하면서 '정치적인 것'의 운명을 비관적으로 진단했다. 따라서 그녀는 정치의 원형을 복구할 수 있는 이론적·실천적 입장을 밝히는 데 전 생애를 바쳤다.

빌라는 정치행위의 탈형이상학적 기초에 대한 아렌트의 입장을 심도 있게 해명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아렌트의 정치철학에는 전근대적·근대적·탈근대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지만, 빌라는 하이데거의 탈형이상학에 근거하고 있는 아렌트 정치철학과 탈근대성을 연계시킴으로써 아렌트 정치철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모색하

고 있다.

한편, "아렌트가 하이데거의 '이론적 전환' 덕분에 '정치적인 것'을 재고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 빌라는 아렌트와 하이데거의 지적 연계성을 인정하고 있다. 아렌트는 '하이데거의 정치'를 중요했지만 세계성과 현존재의 의미를 정치학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다른 한편, 아렌트는 하이데거 철학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빌라는 그녀가 "프락시스의 망각을 조장한 하이데거 철학의 비정치적·반정치적 입장과 투쟁하려는" 지적 노력, 즉 '정치가 존재하는' 정치철학의 형성에 기여한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평가를 고려할 때, 빌라는 '차이의 파토스' 또는 분투를 아렌트 정치철학에서 독특성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빌라는 행위의 본질에 관한 아렌트의 이해를 부각시키면서도 '정신적 삶'의 내재적 원리(다원성·동일성·도덕성)를 체계적으로 해명하고 있지 않다. '외면적' 공공영역과 내면적 공공영역(정신영역)간의 조응관계에 대한 이해는 '정치적인 것'의 아렌트적 재창출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결점에도 불구하고, 빌라는 아렌트 정치행위론의 탈근대성과 현실적 함의를 부각시켜 아렌트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 아렌트의 정치행위론이 시민운동의 중요한 이론적 기초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행위의 본질에 관한 아렌트적 이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아렌트는 행위의 의미를 분화시키려는 노력을 정치철학의 임무로 삼고 있는데, 다양한 행위 유형의 재개념화와 특이한 표현은 정치현상의 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빌라는 아렌트의 이런 지적 노력을 명료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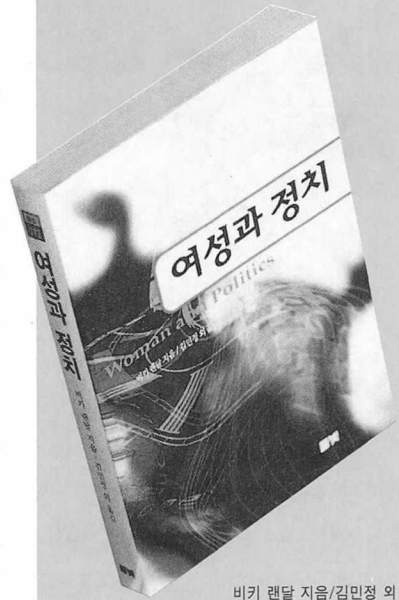
아울러 독특한 재개념화로 인해 한국어 번역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역자의 섬세하고 세심한 용어 선택과 표현이 돋보인다. 이 책은 두 철학자의 비교연구가 일천한 우리 학계에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홍원표

한국외국어대 정외과 강사. 저서 《정치의 대전환》(공저), 논문 《한나 아렌트 정치철학의 역설》 《아렌트의 '정신의 신화'와 그 정치적 함의》 외.

정치적 시각에서 성차별 해석한 고전 우리 정치상황에 많은 시사점 던져

《여성과 정치》



비키 랜달 지음/김민정 외 옮김
풀빛/A5신/422면/18,000원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대개 유사하다. 생물학적으로 남녀가 같은가 다른가 하는 보편적 질문에서 인류학 또는 사회학적으로 일정한 시기와 환경에서 남녀의 생활상이 어떤 모습으로 관찰되는가 하는 특수한 질문에 이르기까지 여성문제에 대한 질문은 매우 다양한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획일적이다.

남녀는 어떻게 같고 다른가? 같다면, 왜 다르게 취급하는가? 다르다면, 어떤 근거에서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신석기시대 이후 가부장적 문명이 정착하면서 축적돼 왔으나 현대문명에 맞는 언어로 문제제기된 것은 근대 평등사조와 함께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정치적 사조의 확산이 남녀문제의 표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차별과 소외는 권력의 문제이므로 인종차별, 종교차별, 성차별 철폐는 근대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한 토대가 됐다. 그러나 여타의 차별문제와 달리 성차별은 재생산·가족·사랑이라는 전근대적 유대관계를 내포하고 있어 차별의 정의와 철폐방법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이 책은 성차별문제를 정치적 시각에서 해석한 고전이다. 1980년대에 집필됐으나 아직까지도

이 방면의 필독서로 널리 읽히고 있다. 제2장 <여성의 정치행태>는 여성의 정치적 태도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편견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정리함으로써 자연인으로서의 여성이 아닌, 정치인으로서의 여성을 가감없이 설명하고 있다. 제3장 <정치엘리트로서의 여성>은 각 사회의 문화와 역사적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놀라우리만치 유사한 여성의 저(低)대표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경우든 여성은 1회용이다. 그 중에서도 최근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할당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평가함으로써 20년 전 랜달의 논의가 이제서야 한국에서 실현되는 듯하다. 제4장 <정치는 여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는 여성이 정치에 진출하는 것이 단순히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의 이해에도 부합되며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경험적 사례를 동서의 이념논쟁을 통해 적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5장의 <여성운동의 정치학>과 제6장 <페미니즘과 정책결정>은 최근 한국 여성단체의 적극적 정치참여와 연계돼 있다. 결국 여성문제는 정치적 자아의식과 세력화를 통해 적절히 제기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가정책을 성인지(性認知)적 관점으로 변화시킬 때 해결될 수 있다는 랜달의 주장은 현재 한국에서 생생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서문에서 역자도 밝히고 있다시피, 뜻도 모를 단어들 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경우 번역서를 읽는 고통은 이루 말하기 어렵다. 이 책은 현재 한국에서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문제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역자들의 수고로 오랜만에 번역서답지 않게 매끄러운 한국어를 읽을 수 있게 해준다. 다만, 좀더 많은 용어에 친절하게 역자주를 붙였더라면 이 방면의 초심자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영애

단국대 법정학부 교수. 저서 <국가와 성> <성, 권력, 정치> <공저> <여성, 여성학> <공저> 외.

서평

테크노피아적 자본주의 예찬론 비판 '비판정보사회론'의 구체적 실천 기대

<사이버사회의 문화와 정치>



홍성태 지음
문화과학사/A5신/244면/9000원

<사이버사회의 문화와 정치>는 젊은 사회학자 홍성태씨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쓴 아홉편의 글을 묶은 것이다. '문화에 대한 정치적 접근', 혹은 '정치에 대한 문화적 접근'이라는 저자의 문제의식은 문화의 탈을 쓰고 전개되는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을 폭로하는 데 맞춰져 있다. 그는 정보사회라는 용어에 스며있는 '테크노피아적 자본주의 예찬론'을 뿌리뽑고자 한다. 정보사회 이데올로기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를 펼치고 있는 저자의 작업은 '사이버'에 대한 개념적 이해에서 출발해 사이버사회의 기술과 정치, 문화에까지 미치고 있다.

저자는 '사이버'라는 용어분석에서 출발해 사이버공간·사이버문화·사이버사회로 분석의 범위를 넓혀간다. 저자는 '사이버'란 용어의 오용과 남용을 참지 못한다. 그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용어가 미치는 이데올로기적 영향과 그것의 남용 뒤에 숨은 폐해를 밝혀낸다. 이를 통해 오용된 용어를 해독하고 원래 용어의 사회적 의미를 되살리려 노력한다. '용어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기술에 대한 사회적 설명'은 정보사회를 휩쓰는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는 데 유용한 처방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런 이데올로기 비판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뤄졌는가 또 다른 문제지만.

그런데 이데올로기로부터 소독된 용어가 어떤 의미를 지닐까? 용어의 순수함을 되살려 방부처리한다고 현실세계의 흐름이 변화하는가? 바로 이 점이 디지털 세상에 대한 개념적 접근의 한계다. 실제의 이용과 실천에서 멀리 떨어진 비평, 혹은 새로움을 창조하지 못하는 이데올로기 비판의 한계는 명확하다. 그것은 이데올로기 비판은 될 수 있어도 현실 비판은 될 수 없다. 이데올로기 비판은 그래서 항상 일면적이다. 적과의 이데올로기 전선에서 상대의 허점과 숨겨진 이해관계를 드러내는 데는 가치 있는 방법이지만 그것이 새로움을 만들거나 현실을 주도하지는 못한다. 이것은 필자의 한계라기보다 어찌면 비평의 한계일지도 모른다.

저자는 '테크노피아적 자본주의 예찬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비판 정보사회론'을 주장한다. 그런데 '비판 정보사회론'은 용어에 대한 원론적인 설명과 기술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비판의 무기로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없다. 이것은 정보사회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연구자들 공통의 과제이기도 하다.

정보사회를 둘러싼 우리의 현실은 급박하게 바뀌고 있다. 진보적 사회과학에 쏟아지는 비판은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지적 게으름에 대한 질타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에 저항하고 자본주의적 확장과는 '다른 정보화'와 '다른 삶'을 꿈꾸는 저자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저자의 연구가 이런 꿈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진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백옥인

서울산업대 인문학과 교수. 저서 <디지털이 세상을 바꾼다> 외.